

#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토스카' 황홀한 선율·비장한 무대 압권

리뷰 - 광주시립오페라단 푸치니 서거 100주년 공연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 6~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오페라 '토스카'를 펼쳤다. 제1막 '성 안드레아 델라 베레 성당'에서 출연진들이 합창하는 모습 (왼쪽). 2막 2장 '그날 저녁, 파르네제 궁전 스키타의 방'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오페라단)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토스카' 전막 공연을 지난 6~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 올렸다. 이 작품은 지난해 ACC 예술극장에서 콘서트판 버전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주역을 맡았던 김라희(소프라노·토스카), 김진우(테너·스플레타)가 출연했으며 민숙연, 윤병길, 이시아, 고성현 등이 합류했다.

장막이 오르면서 관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풍경은 프로시니엄을 가득 채우는 교회 세트. 압권의 미장센으로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성 안드레아 성당을 스크린에 굵은 상(像)으로 투시했던 지난 버전과 달리, 대리석과 황금으로 치장한 '일그러진 교회'를 실물 세트로 구현했다.

기술어진 초대형 석주(石柱) 여덟 개와 입체적인 스크린은 한 폭의 데포르망(왜곡)을 연상시켰다. 성결한 프레스코 성화(聖畵)마저 빛을 감춰 이날 공연이 비극으로 치닫을 것임을 암시했다.

최철 감독은 "뒤틀린 교회의 모습은 광주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처럼 일그러진 '스카르피아'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대형 수조를 활용해 내리는 비를 표현한 장면 등, 전체적으로 무대 연출에 공력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오페라단(무대디자인 김현정)은 "발품을 팔며 통상 비용의 1/2 수준으로 세트를 특별 제작했다는 후

초대형 석주 모형·입체 스크린  
황금 치장 교회 등 무대 연출 공들여  
뒤틀린 교회 모습에 5·18 연상  
배우들 감정선 따라 연출 섬세  
객석 메운 관객들 아낌없는 환호

문이다.

제1막 '성 안드레아 델라 베레 성당'은 그릇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당 벽화 작업을 의뢰 받은 화가 카바라도시는 탈옥범 안젤로티를 만나고, 이를 쫓던 경시총감 스키타피아는 토스카의 연인이 범인을 숨겨줬을 거라 짐작한다. 그는 토스카의 질투심을 부추겨 카바라도시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하게 만들며 긴장감을 자아냈다.

인물들의 야욕은 대사와 'Va, Tosca!', 'Ah quegli occhi' 등 곡을 비롯해 오브제와 장치들 통해 알려고리했다. 배우들의 감정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빛물의 양을 조절한 2막은 단순한 풍경묘사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섬세한 빗방울은 오케스트라 음향과 함께 감동을 남겼다. 토스카가 부른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

고' 카바라도시의 '별은 빛나건만' 등도 저마다 선율을 더했다.

새벽의 분위기를 묘사하듯 화음이 하강했던 3막도 인상적이다. 양치기 소년의 노래와 함께 들린 '중소리'는 총살형의 두려움과 토스카의 절망을 환기하는 장치였다. 극 중 토스카가 스키타피아를 살인하는 대목은 내년 7월 개봉 예정인 변영주 감독의 드라마('사막')에도 삽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휘는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마르첼로 모타렐리가 맡았으며 광주시립합창단, 문화신포니에타,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극 중 모타렐리는 카바라도시나 스키타피아 등이 두 팔을 벌리며 웅변하는 장면에서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며, 플로어와 피트를 어우르는 지휘법을 보여줬다.

"내 목숨으로! 오, 스키타피아! 신의 심판대 앞에서 보자!"

공연은 사로네와 스피레타를 피해 토스카가 성곽 아래로 몸을 던지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객석에는 악곡 'Com'e Lunga L'attesa!'의 잔향만이 예상적인 울림으로 남았다.

이날 공연은 1517석(1층 1102석, 2층 415석, 장애인석 16석)에 달하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졌음에도 종합 예매율 90%에 달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자연에서 소화행...시골로 가는 예능

산지 식재료로 요리·연예인들 시골 생활 등 전원 생활 소재 인기



'언니네 산지작송'



'시골에 간 도시Z'

제철 식재료를 소개하고 수확부터 산지 직송, 요리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언니네 산지작송' 젊은 연예인들의 낮선 시골 생활을 다룬 '시골에 간 도시Z', 오랜 친구 차승원과 유해진의 유쾌한 시골 생활을 담은 '삼시세끼 라이트(Light)'.

도심을 벗어나 전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삼시세끼' 시리즈의 성공 이후 이미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포맷에 약간의 변주를 더하고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영되는 tvN 예능 '언니네 산지작송'은 동시간대 케이블과 중편 프로그램 중 2049 시청률(20대부터 40대까지의 시청률)이 첫 방송부터 8주 연속 1위에 올랐다.

TV 채널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중인 티빙에서도 '언니네 산지작송'은 '오늘의 티빙 톱(TOP) 20' 순위에서 몇차례 전체 1위에 올랐다.

이달 12일 마지막 방송을 앞둔 '언니네 산지작송'은 2막을 중심으로 박진, 안은진, 텍스가 여촌에서 제철 식재료를 수확하고 요리를 만들어 먹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이다.

농어촌 식재료를 요리하는 점에선 익숙한 형식이지만, 지역별 제철 식재료를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그 식재료가 어떻게 포장돼 밥상까지 옮겨지는 지 다룬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8일 오후 첫 방송을 앞둔 ENA의 '시골에 간 도시Z', 이달 20일 방송될 예정인 tvN '삼시세끼 라이트(Light)' 역시 비슷한 결의 프로그램이다.

'시골에 간 도시Z'는 젊은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제복처럼 출연자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에 태어난 Z세대라는 게 특징이다.

6명의 고정출연자 가운데 1986년생 양세찬과 1989년생 이이경을 제외하면 이은지, 송건희, 미연, 정동원 모두 1990~2000년대생이다. 가장 어린 정동원은 2007년생이고, 첫 회 게스트인 그룹 에스파의 윈터 역시 2001년생이다.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기존의 여러 예능이 차승원, 유해진, 이서진, 염정아 등 노련한 30~50대 출연자를 주축으로 했던 것과 달리 출연자 절반 이상을 90년대생으로 채우고 젊은 게스트를 불러 신선한 인상을 주려고 했다.

'삼시세끼 라이트'는 시골을 배경으로 한 힐링 예능을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삼시세끼' 시리즈 10주년을 기념한 프로그램이자 작전 시리즈인 여촌편 시즌5가 종영한 지 약 4년 만에 나오는 신작이다. 시리즈에 여러 차례 출연한 차승원과 유해진이 이번에도 고정 출연해 기존 시리즈 팬들의 추위를 자극하고, 김고은과 임영웅을 게스트로 섭외해 신선함을 더했다. 나 PD와 신효정 PD가 연출을 담당한다. /연합뉴스

# BTS RM '네바 플레이' 87개국 아이튠즈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이 참여한 미국 래퍼 메건 디 스탈리언의 신곡 '네바 플레이'가 여러 글로벌 차트에서 선전했다.

7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네바 플레이'는 450만회 이상 재생돼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0위에 올랐다.

이는 RM의 솔로곡 기준 이 차트에서 자체 최고 성적이다.

'네바 플레이'는 전일까지 미국, 독일, 캐나다, 그리스 등 전 세계 87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전날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네바 플레이'는 중독성 강한 비트가 특징인 힙합 장르의 곡이다. 메건 디 스탈리언의 화려한 래핑에 RM의 묵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어



우러졌다.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5위를 기록해 50일 연속 '톱 텐'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